

예술과
만남

06

2016 June + July vol. 120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07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ver Model

김남연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예술감독

Focus

04 / Focus Image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06 / Focus Interview

차세대 클래식 아티스트 3인 릴레이 인터뷰

10 / Focus Column

새벽을 싣는 장막하이픈서도 긴 언덕

14 / Focus Staff

오디션 무대 뒤
그 아득한 밀집 실패의 현장



Stage

16 / 주목 이 공연 I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스리즈 V · VI 이리보기

20 / 주목 이 공연 II

시대를 초월하는 그룹 「아바」의 힘
유지철 담미미아

22 / 과감하게 콜라보기

24 / 다시 읽고 넘어갈 순간 I

경기실내아육제 with 킨커스 주커만

27 / 다시 읽고 넘어갈 순간 II

경기 리카르도 푸티 오페라 아카데미



Interview

30 / GGAC가 만난 사람 I

세계 최정상 클래식 거장
솔로모 민츠

33 / GGAC가 만난 사람 II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
작가 황선진

36 / GGAC가 만난 사람 III

시대를 막론한 家長의 아이들.
아버지 그 위대한 이름에 불인..
배우 정동환



Story

40 / 예술 수작을 곁다 I

우리 아이의 예술적 재능
어떻게 발견할까? 어떻게 키워줘야 할까?

44 / 예술 수작을 곁다 II

영반으로 미리 만나는
〈경기미술 마스터 시리즈 V-VII〉

48 / 예술과 인문학

동화적 상상력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미하일 연대』 한 걸음 더 들여다보기

52 / 장르와 경계사이

예술의 물로

56 /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경기 리카르도 무디 오헤라 아카데미의
카타리 아저씨 '대보그름'

58 / 예술 즐기기



G.Talk

59 / 예술 더하기

60 / GGAC 뉴스

62 / 공연일정

63 / Special Note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부탁해!



예술과 만남

06

2016 June + July vol. 130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07

Editor's Letter

지난 경기살인아수제에 꼬마 숙녀를 초대했습니다. 연필로 꼭꼭 눌러 쓴 아이의 일기장엔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군요. 꼬마 숙녀님은 음악회의 2번째 곡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살짝 그 일기장을 옮겨보면 "난 그중에 2번째 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행복한 울도 있고... 마치 무지개 사탕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어때요. 표현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일포리가 올라가요?

친 이 친구가 말한 무지개 사탕을 먹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몇 가락을 타듯고 상상을 해보고요 해도 그 심오한 뜻은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음악회에 꼭 빠져 예쁜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아이가 사랑스러운데요. 이 날의 감동이 아이의 삶에 오랫동안 반짝반짝 빛났으면 합니다. 이 친구의 일기장을 보며 문득 어릴 적 기억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살 정도 되었을까요. 기억에 남아있는 제 인생의 첫 뮤지컬로 호빗한 기억 속 그 흥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날 때론 만은 아니었지만 작은 공연이 주는 설렘과 무대에 커는 기대감에 때로때 지금 공연장 밥을 먹고 있네요. 처음 본 클래식과 뮤지컬, 연극과 국악이 좋아서 계속 공연장을 찾는 이가 생기는 것처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행복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6·7월, 저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발행인 | 정재훈

편집인 | 정재훈

편집장 | 최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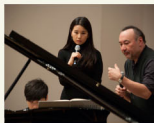
기획 · 취재 · 편집 | 조신애

발행처 |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문서 월드컵구 호평로 307번길 20)

Tel 031-230-3200 / Fax 031-230-3469

기획 · 사진 · 디자인 | 만디림





GYEONGGI YOUNG ARTIST SERIES

차세대 예술가들을 위한 꿈의 축제
세계를 향한 이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지난 5월 10일, 청담동 한 스튜디오에서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2기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미소녀답지 않은 차분함이 유독 인상적인 정지원(16, 피아노), 또박또박 소산을 밝히는 혼남 이동열(21, 첼로), 여유로운 몸짓과 강렬한 눈빛의 하규태(21, 피아노), 까다롭고 어려운 오디션을 통과한 영광의 얼굴들이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지난 2015년 시작한 '문화 나눔 Win-Win 콘서트'의 새로운 타이틀로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독주회는 물론 오케스트라 협연과 찾아가는 공연, 국내외 저명 아티스트 마스터클래스, 아티스트 홍보 등 본격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연과 트RAINING을 통해 국제콩쿠르에서 필요한 무대 경험과 전문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를 쌓게 된다. 이번 시리즈를 끌고 갈 수장은 컨설턴트지베스, 차이콥스키, 파가니니, 하노버국제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현 한국영재교육원 원장) 김남윤 예술감독이다.

차세대 클래식 아티스트 3인 릴레이 인터뷰

국제 무대를 빛낼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2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아심차게 준비해온 프로젝트로 올해 두 번째를 맞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국내 유일의 본격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기도 한 이번 시리즈는 무대 경험이 절실한 클래식 음악계에 신선한 돌풍을 몰고 왔다. 만 14세~25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를 대상으로 1차 동영상 심사과 2차 무대 오디션을 통해 합격한 3명의 영광스러운 얼굴들을 만나본다.





“25살까지 참가 가능하니 될 때까지 도전하려 했던 꿈의 무대입니다”

정지원
(16세, 예원학교)

내가 생각하는 음악적 매력 피아노는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악보가 주는 기본적인 틀 위에서 나만의 느낌으로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매력이에요.

좋아하는 음악가 혹은 작곡가 제겐 모차르트가 단연 제 삶의 워너비이며 롤모델입니다. 모차르트의 곡은 들을 때마다 신비하고 새로워요. 감히 완벽에 가깝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모차르트는 제가 따라 하고 싶고, 닮고 싶은 유일한 음악천재인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취미로 피아노를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이만큼 오게 되었죠. 저 자신보다 선생님과 주변 분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칭찬이 저를 키운 것 같아요.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전공했고, 다양한 국제 무대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량의 연주자들을 보며 꿈을 키웠어요. 제가 공부육이 좀 있나 봐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번 경기영아티스트 오디션 참가 소감 오디션 볼 때 떨리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떨리진 않았어요. 지난해 경기 영아티스트 1기 선발 때 결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험 덕분인지 오히려 답답했어요. 부모님이 저더러 나이에 비해 멘탈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25살까지 참가 가능하니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아직은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될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자세라고 생각해요.

경기영아티스트 시리즈에 가는 기대 한국에서는 실력이 뛰어난 어린 연주자가 있다고 해도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데 인색한 것 같아요. 국제 무대에서 아무리 상을 받아와도 무대 연주의 기회는 거의 없어요. 치열하게 오디션을 거쳐야 겨우 한번 정도 협연의 기회가 있기는 하죠. 유난히 1등만 기억하는 문화도 이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기 영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정말 뛰어난 형들과 누나들도 많았는데 저를 뽑아주신 것은 앞으로의 잠재력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 2년 전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최초 랑랑 국제음악제단 홍보대사로 선정된 적이 있어요. 랑랑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아 연주를 하는데 관객들이 엄청 큰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 제게 뚜렷한 꿈이 생겼어요. 피아노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주고 싶다는, 제 도래의 피아노 꿈나무들을 위해 재능기부도 하고 싶고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발전하여 음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음악적 매력 첼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은 악기라고 해요. 오케스트라에서 날카롭고 화려한 음색의 바이올린이 주연이라면 첼로는 푸근하고 나직한 소리로 뒷받침하는 조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감성이 지닌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다는 것, 뒤지 않는 안정감,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깝다는 첼로의 매력이 여기 있어요. 악기 연주뿐 아니라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여, 첼로를 통해 저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음악적 매력이지요.

좋아하는 음악가 혹은 작곡가 독일의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처라는 청년 연주자가 있어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요, 이미 최정상의 지휘자로부터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행운이다'라는 평을 받을 만큼 뛰어난 첼리스트죠. 제가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을 안드레이가 연주하는 데 제가 하고 싶었던 목소리를 딱 내는 겁니다. 이후 안드레이의 실내악, 소나타곡 등을 술하게 들었어요. 정말 닮고 싶은 저의 워너비입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 저는 훗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것도, 교수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솔리스트가 되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6살 때부터 첼로를 시작하여 벌써 16년째인데 어렸을 때 당연히 첼로가 좋아서 했다면, 지금은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어떤 의무감이 있어요. 첼로를 통해 제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겠지만 솔리스트가 되어 제가 가진 감성과 꿈까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첼로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경기 영아티스트 오디션 참가 소감 이번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엄청 떨었어요.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현하고, 대단한 실력을 지닌 학교 후배와 함께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어 부담스러웠죠. 그만큼 신선한 자극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요. 결국 후배는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저는 합격하여 미안하고 불쾌했지만, 이번 오디션을 통해 후배와 유쾌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 한 획을 그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에 가는 기대 지난해, 경기 영아티스트 1기로 선발된 누나를 보며 참 많이 부러웠어요. 무엇보다 연주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죠. 국내 어디를 살펴봐도 이만한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제가 꿈꾸는 예술을 존중해주고 끌어주고 또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저의 바람보다는 경기 영아티스트가 원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연주자가 되어야죠. (웃음).

앞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는지 한때는 음악을 독하게 치열하게 하는 연주자이기보다 음악을 즐기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연습을 하고 싶을 때만 했어요. 해야만 한다는 부담이나 의무와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저의 이런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저를 뒷받침하는 부모님을 보면, 언제까지나 음악을 마냥 즐기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친 거죠. 제가 힘들 때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았듯, 우리 부모님에게 희망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첼리스트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가 아닌 제 연주와 관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을 아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아닌
희망과 힐링을 주는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이동열
(2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저의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연주로,
제2의 조성진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규태
(29세,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인터뷰도 찾아보곤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노 가장 크리스티안 짐머만도 좋아해요. 그분은 워낙 대가라서 연주를 들으면 그냥 뽀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 음악을 할 때 제가 살아있는 듯한 정체성을 느껴요. 피아노를 마주 대할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이 느껴진다고 할까. 음악을 할 때만큼은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행복해요. 틈나는대로 수영으로 체력도 키우고 독서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어서예요. 몸도 마음도 단단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영아티스트 오디션 참가소감 학교 공지를 통해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오디션을 알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특별히 떨리거나 긴장된 것은 없었어요. 베토벤 소나타와 콘체르토 등을 연주했는데, 그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잠재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했죠. 어떤 연주를 대하든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일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피아니스트 하규태가 되고 싶어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에 가는 기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연주할 수 있고, 거장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영광이고 기쁨이죠. 이런 프로젝트는 국내에서는 처음인데다 흔치 않은 일이라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요. 앞으로 다양한 색깔의 연주를 통해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커요.

앞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무대에서 만큼은 자를 있는 그대로, 가식 없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연주할 수 있는, 또 열정과 진심을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음악적 매력 피아노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 좋아요. 정해진 한 가지 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폭넓고 깊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피아노는 나만의 색깔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음악가 혹은 작곡가 제가 중학교 때 조성진 형을 처음 알았는데 형이 연주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음악을 즐기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부러웠어요. 지금도 조성진 형의 영상을 많이 쟁여보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김남윤 예술감독

“음악 안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의지로 이번 특별한 프로젝트를 참가, 2회째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교수. 지난해 예술감독으로 위촉 후, 김 교수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음악계는 물론 세계적인 무대를 끌고 나갈 후대 음악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음악교육에 오랜 시간을 쏟았다는 선배 음악인으로서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사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어필하느라,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함께 세계 거장들과 협력자들의 멘토링 및 국제 콩쿠르 준비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특히 국제 콩쿠르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시리즈에 가는 기대가 남달랐던 김 교수는 ‘콩쿠르에서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실득할 수 있는 연주를 펼쳐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콩쿠르 참가자에게는 여러 음악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 교수의 소망은 1년여 만에 현실로 찾아왔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판카스 주커만의 마스터 클래스는 물론 171 할작자들의 국제 대회 낭보도 이어졌다. 박진행(19, 연세대학교)과 김준호(20, 경희대학교) 7회 프라하 볼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나란히 피아노부문 1, 2위를 수상한 것. 김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의 비전이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음악계의 도발성이 되어 국제적인 전문 음악인 양성소가 되기를 염원했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아직은 여러모로 지원이 부족한 대한민국 음악계에 신선한 도전의식과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클래식 아티스트를 키워낼 메카로써 오래도록 지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운다

새싹을 심는 창의적이면서도 긴 안목

글 노승렬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컬럼니스트



경기 영아티스트 1기
박진형

경기 영아티스트 1기
조수민

경기 영아티스트 1기
김준호

내일 아침 숨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오늘
아침 새벽을 심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장 결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새벽을 심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을 사는 다음 세대의 삶을 걱정하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족하지 않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재능을 가진 인재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은 그 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로
평가되기에 더욱 소중하게 키워야 한다.

과거에는 이 역할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스승들이 도맡아 했다.
국내 최초의 콩쿠르 입상자였던 피아니스트 한동일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정명훈, 정경화, 정명과 남매들은 국가나 체제의 혜택을 받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재능을 알아본 스승과 부모의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었다면,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고전음악계는 지금보다 훨씬 척박했을지도 모른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이후에도
음악인 양성은 주로 교육기관과 사기업의 재단이 주도했다. 사실
공연장이라든가 지방자치문화단체에게는 교육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말 못할 이유가 있다.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으로는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교육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임기가 제한된 단체장들 또한 자신의 눈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에 손을 대기가 꺼려진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업성과의
공로가 그 사업을 시좌한 이가 아니라 마무리한 이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에서는 더욱더 낯 좋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미래를 알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보다 단발성의 거창한 이벤트에 문화
관련 예산이 집중되어 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경기 예술가 1기
정우환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 경기필 마스터 클래스

국제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음악 영재 교육 프로그램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추진 중인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가 돋보이는 이유는 음악교육에 공헌장이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의 전신은 지난해 개최된 문화 나눔 Win-Win 콘서트로, 보다 본격적인 음악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완성된 음악가를 청중에게 소개하는 데 그쳤던 공연장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무대에 세울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자문 아래 직접 구성하는 한편, 공연장을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 마스터 클래스나 교육과정은 주로 이론과 기교 위주로 레슨이 진행되며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1회의 공연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전공생들은 콩쿠르에 참가하고 나서야 실전 무대의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선발된 참가자에게 공연 무대와 관련된 실전 트레이닝은 물론, 독주회와 오케스트라 협연을 포함한 다양한 무대 경험 기회를 1년에 걸쳐 제공한다. 참가자들을 가르치는 멘토들 또한 교육자로서의 명성보다는 세계무대에서 아직도 왕성히 활동하는 현역 아티스트 위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 첼리스트 지안 왕, 피아니스트 존 키무라 파커 등이 선발된 학생들과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는 공연장과 상주 오케스트라를 자산으로 가진 단체만이 시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연주가의 정체성이 무대 위에서 청중들에게 음악을 전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의 프로그램은 무대 공포증을 호소하는 다수의 젊은 연주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1기 경기 영아티스트로 선발된 피아니스트 김준호는 이 시리즈에 참가한 이후 제55회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1위에 입상한 뒤 아마하 음악 강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피아니스트 박진형 또한 중앙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본선 1위에 입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제 71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박진형과 김준호가 나란히 1·2위를 수상했다.



제 71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2위를 수상한 박진형(좌)과 김준호(우)

제2의 성시연을 찾아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차별화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5년 전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기필 마스터 클래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한국의 클래식 음악 교육은 기악 솔리스트 양성에 편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지휘와 작곡 교육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이에 경기필의 협조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국내의 지휘 전공자들에게 전문 관현악단을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자리를, 작곡 전공자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약기를 동원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 4년 동안 스물두 명의 지휘자와 다섯 명의 작곡가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다. 경기필은 거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동시대 음악 레퍼토리를 발굴할 수 있었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또 하나의 획기적인 시도는 프로그램 전 과정을 관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데 있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영아티스트 시리즈를 통해 관객들은 단순히 '완제품'으로서의 공연을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클래식 음악가를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의 교육을 책임질 심사위원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5월 4일 마스터 클래스를 연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과 7월 1일 마스터 클래스를 책임질 현역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이며, 한국 바이올린 교육의 대모 김남운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강중모가 심사위원석에 앉았다. 4월 23일 첫 번째 오디션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올해 영아티스트 시리즈는 피아노뿐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등 3가지 악기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발된 영아티스트들은 1년 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 지휘 아래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지난해 뽑힌 1기 아티스트들과 함께 12월 21일 송년 갈라 콘서트에 출연한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Back Stage Story

오디션 무대 뒤, 그 아득한 떨림 설렘의 현장

4월 23일과 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엔
불기운을 무색하게 만드는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던 그 시간,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려는 수십 명의 젊은 음악도들의
손에는 땀이 맺혔고, 차세대 음악가를 발굴하려는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무대 뒤
오디션 현장을 지휘한 예술단 문화나눔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 움직였다. 꿈에 대한 떨림이
가득했던 현장, 그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사진작가의 숨을 멎게 한 찰나.
'떨어진 말총'
이 무대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에...



▶ 불 꺼진 객석, 환한 조명아래
오롯이 나와 헬로만이 남겨졌다.
난 오늘 이 무대의 무게를
견뎌야만 한다.

첼리스트 이종열



YOUNG ARTIST

오디션 진행부터 심사위원 케어
그리고 대기실의 긴장한
참가자들의 마음까지 세심히
챙기는 숨은 공신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담당
신혜림 과장

공연기획자란?

기획의 전문성과 더불어 예술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작업이기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춰야 한다.



음향관 설치부터 피아노 위치,
조명 하나하나 이들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무대.

무대 위의 조율자, 무대기술팀
앞 김창원 무대기술감독 / 뒤 이준영 무대감독



참가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피아니스트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이자 스승으로서의
애뜻함이 담겨있다.

피아노 부문 심사위원 김정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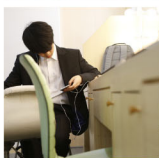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나눔사업을 담당하는
'예술단 문화나눔팀'

경기 영아티스트 등 예술의 미래를 키우고
도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해 힘쓰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핵심부서 중 하나!



바이올린 부문 오디션 후 서로의
의견을 신중하게 나누는 심사위원들

(좌) 김남윤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예술감독
(중) 김현미 한예종 교수
(우) 정재홍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참가자 대기실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연습에 또 연습을
대기실에 흐르는 정적에
저절로 숙연해진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시리즈 V·VI
미리보기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바그너, 멘델스존 & TACTUS’란 주제로 바그너와 멘델스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다루는 이번 시즌.

6월에는 20세기 초 격변의 시대상을 반영한 말러와 알반 베르크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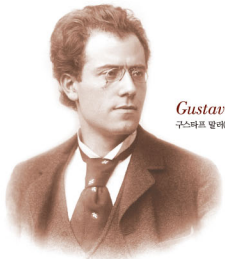
7월에는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으로 이어지는 독일 음악의 정수가 청중을 기다린다.

마스터 시리즈 V

오는 6월 8일과 9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말러 교향곡 1번 ‘자연과 함께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교향곡 5번이 연주된다. 말러가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 그는 빈 궁정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최고의 명성과 높은 예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멸시와 적대적인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의 심적 고통은 커져만 갔다. 아울러 건강까지 악화된 그는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삶의 처절한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던 말러에게 1901년 11월 빈 교외에서 열린 사고 파티에서 만난 ‘알마 신들러’는 특별했다. ‘빈의 아름다운 꽃’으로 불리며 수많은 예술가들의 뮤즈였던 그녀는 19살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구애를 펼친 말러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1902년 3월 부부의 연을 맺는다. 위기 뒤에 찾아온 사랑이 말러에게 환희의 기쁨을 선물했는데, 이 시기의 말러의 삶이 투영된 곡이 바로 교향곡 5번이다. 특히 널리 알려진 4악장 ‘아다지예토’는 알마를 향한 말러의 연서(戀書)로 일상에 지친 한 예술가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애절한 호소로 말러의 가장 은밀하고도 진솔한 내면의 고백이 담겨있다.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감동을 배가

전체적으로 이 교향곡은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라는 이를 제1부(제1·2악장), 제2부(제3악장), 제3부(제4·5악장)로 나눴다. 제1부는 죽음과 분노, 고통을 노래하며 제3부는 사랑과 회열, 열정을 그린다. 이 양 극단의 감정을 잇는 것이 제2부인데 이 거대한 스케르초를 얼마나 잘 연주하느냐가 사실상 말러 교향곡 5번 연주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단원 개개인에 요구되는 연주 기교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어두운 장송행진곡으로 시작해 극단의 회열로 끝나는 전체 흐름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이끌어 가는지 말러 스페셜리스트 성시연의 해석이 클래식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Gustav Mahler
구스타프 말러(1860~1911)

6월 9일 예술의전당에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알반 베르크의 7개의 초기 가곡도 연주된다. 알반 베르크는 '제2차 빈악파'로 극적 표현과 격렬한 감정의 표출에 뛰어났다. 그의 문학적 관심과 깊은 이해는 성악 작품에서 돋보였으며 처음으로 출판된 것도 성악 작품이다. 20대 초반에 작곡된 7개의 초기 가곡은 슈만의 로멘타시즘에서 유래하기도 했으며, 후기 낭만파의 정취를 풍기거나 인상파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어 베르크의 음악적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각 곡들이 작곡된 시기적인 간극과 기법적인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무대 협연자로 따뜻하면서도 위엄 있는 목소리가 특징인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이 함께 한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자와 함께 세계 성악계의 디바로 주목받고 있는 그. 2008년 첫 내한 이후 오랜만에 한국 팬들과 만나는 자리로 그가 어떻게 청중들을 매혹시킬지 기대를 모은다.



Alban Berg
알반 베르크(1885~1935)

마스터 시리즈 VI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부활

7월 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마스터시리즈VI에는 단연 세계 최고의 파가니니 스페셜리스트 '슬로모 민츠'와 경기필하모닉과의 만남이 세간의 관심을 끈다. 민츠는 지난 4월에 경기실내악축제를 이끈 핀커스 주커만과 이작 필만 등 유대계 바이올리니스트의 제보를 정통적으로 계승한 연주자로서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다채로운 기교, 웅장한 테크닉은 항상 클래식 애호가들을 설레게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브람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이 작품은 베토벤, 멘델스존의 곡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힌다. 거대한 스케일, 중후한 음악적 내용으로 진중하면서도 목가적인 정취를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베토벤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낭만주의 특유의 화려한 산용에는 브람스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외에도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 서곡이 연주되는데 베토벤과 브람스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Johannes Brahms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

2부에는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가 오른다. 경제난에 시달린 대부분의 음악가들과 달리 소위 음악계 금수저로, 독일의 부유한 유대계 집안에서 자란 멘델스존. 어릴 적부터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자란 그였기에 멘델스존은 각 악기가 내는 소리의 특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 이는 그만의 독특한 음색 조화를 표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20대 초반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힌 멘델스존. 교향곡 4번은 작열하는 태양 아래 빛나는 이탈리아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멘델스존은 이 곡에 대해 "작품들 중 가장 성숙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호평하기도 했다.

이 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있는 1악장은 이탈리아의 밝은 햇살을 연상시키며, 2악장에서는 오보에와 바순, 바이올라에 깨끗한 화음이 평온한 기분을 전한다. 3악장에서는 호른의 가쁜 리듬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멘델스존의 들뜬 마음을 느낄 수 있다.



Jacob Ludwig Felix Mendelssohn-Bartholdy

멘델스존(1809~1847)

4악장에서는 경쾌한 리듬의 나폴리 민속춤인 살타렐로와 타칸텔라로 이탈리아의 정열적인 분위기를 담았다. 이 곡에 대해 슈만은 "우리를 이탈리아의 밝은 하늘 아래로 이끌어 간다. 이 곡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이탈리아의 감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청년 멘델스존이 경험한 생생한 이탈리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시리즈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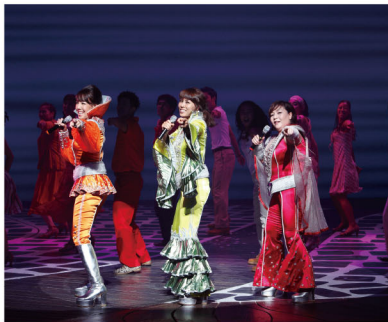
일시	6.8(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B석 1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프로그램	말러 교향곡 5번

일시	6.9(목)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R석 8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
프로그램	말러 교향곡 5번, 알반 베르크의 <7개의 초기가곡>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시리즈 VI

일시	7.9(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B석 1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
프로그램	베토벤 <프로메테우스> 서곡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시대를 초월하는 그룹「아바」의 힘 뮤지컬 맘마미아

투명하게 푸른 바다 위 하얗게 부서지는 은빛 햇살을 머금은 지중해를 그대로 옮겨 놓은 무대엔 시종일관 사랑과 꿈의 노래가 넘실댄다. 2004년 초연된 뒤 지금도 객석 점유율 87%를 기록하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7월 말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전설적인 그룹 아바의 주옥같은 대표 곡 22곡을 오롯이 만나는 시간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아바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맘마미아>의 매력을 파헤쳐 보자.

포인트 1.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년 여성 도나와 친구들의
우정, 도나와 딸 소피의
모녀간의 정, 소피와
남자친구 스카이의 풋풋한
사랑과 도나와 옛 연인 샘의

애틋한 사랑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여러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사랑과 청춘의 동경 등 삶의
진솔한 가치들이 극 구석구석에 녹아져 있는데
보편적 삶의 가치를 무겁지 않게 따뜻하고 가볍게
그려내며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일시 7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30일(토) 오후 2시 · 7시, 31일(일)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출연 최정원, 홍지민, 신영숙, 남경주, 이현우, 성기윤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포인트 2

중장년 관객까지 극장으로 끌어오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중년의 힘을 보여준다. 대부분 젊은 남녀가 주역인 다른 뮤지컬과 달리 〈맘마미아〉 주인공 자리는 중견 배우들이

차지한다. 탄탄한 실력을 겸비한 중년 배우들의 존재감이 마음껏 발휘되는 무대. 뮤지컬은 젊은이의 전유물이란 인식을 허문 〈맘마미아〉에서는 신분,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춤추며 어울리는 놀라운 광경이 매 공연마다 펼쳐진다.

포인트 3

뮤지컬 맘마미아의 화려한 귀환!

성대한 커튼콜은 이 작품의 백미 중 하나. 아바의 히트곡 〈맘마미아〉 〈댄싱 퀸〉 〈워털루〉 세 곡으로 이뤄진 커튼콜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며 공연장의 열기를 후끈 달궂어 놓는다. 또한 그리스 풍광을 만들어 내는 특수 조명들이 빛으로 빛은 꿈의 섬으로 관객을 인도한다. 의상도 눈에 띄는데 한국 공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220벌의 의상과 155벌레의 신발은 소재 하나하나 명품 의상으로 극의 품격을 더했으며 특히 '슈퍼 트루퍼' 의상은 3000개 가까운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어 조명의 각도에 구애 받지 않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도록 세심한 정성을 쏟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즐거리 |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엄마 도나와 살고 있는 소피는 행복한 결혼을 앞둔 신부. 그러나 완벽한 결혼을 꿈꾸는 그녀의 계획에 흠이 있다면 결혼식에 입장할 손을 잡아줄 아빠가 없다는 것! 우연히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소피는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되고 엄마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한다. 결혼식 전날, 소피가 초대한 세 남자(샘, 해리, 빌)가 그리스 섬에 도착하면서 도나는 당황하게 되는데... 과연 소피의 아빠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의 결혼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경기도립국악단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

일시 6월 1일(수) ~ 3일(금) 오전 11시, 4일(토)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 원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내 친구가 되어줄래?" 2016년 더욱 '핫'하고 '스페셜'하게 돌아온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도립국악단의 마음이 담긴 작품. 세계가 사랑한 작가 미하엘 엔데의 '곰돌이 왕자'의 여행이 흥겨운 국악 선율에 따라 펼쳐지는데, 일제 착 갈기는 전래 동요와 피리, 해금, 아쟁 등 생생한 실험 연주와 친구 찾기에 나선 곰돌이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내가 만드는 동화이야기 체험전 HI STORY

일시 6월 7일(화) 까지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빛나는 갤러리
가격 어린이 1만 8천원 / 어른 1만 원 / 단체 1만 원
관람연령 만 24개월 이상

아이의 동화적 상상을 자극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겼다. 〈빨강과 그레텔〉, 〈아기돼지 삼형제〉, 〈달리마 여행〉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시간 동화처럼 쿠키도 만들고, 지도도 그려보고, 개러한 파도와 맞서는 동안 아이들의 입이 연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아이의 창의력을 깨워주고 싶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듯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6월 21일(화)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출연 피아니스트 김정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호르비히의 강산과 플리히의 논리를 이상적으로 결합한 우리 시대의 한류주자,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무대! 오는 2017년까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계획하고 있는 김정원이 네 번째 무대를 갖는다. 고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유려한 건 호송이 인상적인 그의 슈베르트와 만나는 시간 〈피아노 소나타 9번 B단조〉, 〈피아노 소나타 14번 A단조〉,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가 연주된다.



경기팔하도니 마스터리츠 V 말러 교향곡 5번

일시 6월 8일(수) 오후 8시 경기문화재단 대극장
장소 6월 9일(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수월) R석 4만 원 / S석 3만 원 / A석 2만 원 / B석 1만 원 (사월) R석 4만 원 / S석 3만 원 / A석 2만 원 / B석 1만 원
프로그램 말러 교향곡 제5번(수원, 서울), 알반 베르크 7개의 초기 가곡(서울)
출연 지휘 성시현, 소프라노 케이트 로열, 연주 경기팔하도니 오케스트라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비그나와 멘델스존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다루는 '비그나, 멘델스존 & TACTUS'의 두 번째 시리즈 영국을 대표하는 스프링스 '캐이트 로열'과 경기팔하도니 오케스트라를 특유의 열정적 해석을 기대하소서



2016 브렌치 콘서트 로만틱 유적 레시미 - 노래하다, 춘향

일시 6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 5천 원
출연 이봉진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전통과 퓨전을 오가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티스트 이봉진이 새로운 춘향을 선보인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춘향', '아름'이 가 시대를 관통하여 어떻게 시로 정음지가 관련 포스트, 가곡 연주자이자 상악악기 연주자이자 한국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가려는 젊은 명인 아명 연주자 이호준의 색다른 해석을 발견해 한다.



BOOK & TALK CONCERT Youngwon Kim O2 : 여름 소나타 만발의 청춘

일시 6월 28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출연 이종진, 김연아, 정준일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지난 3월에 첫 선을 보인 〈영원연의〉의 관객 반응은 뜨거웠고 그 기대감을 지연스레 두 번째 시리즈로 이어졌다. 이번 무대는 20대를 이야기한다. 냉정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청춘이란 이름의 무가 남다른 오열의 스무 살에 대해 핵반 주인공 이종진과 골 손님 김연수, 음악 손님 정준일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줄까?



문화가 있는 날 매일 찾아오는 행복한 선물 <작은 음악회> 프랑스의 낭만

일시 6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1층 1만원 / 2층 5천원
출연 프랜시스 시크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365일 숨 가쁘게 달려오는 한국인의 삶에 여유를 쉼길 시켜주는 '문화'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매일 마지막 주요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1900~90년대 프랑스 피아노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재즈곡과 샹송, 프랑스 영화음악을 통해 프랑스의 낭만적인 정취를 느껴본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질서 스릴 음악의 구사하는 재즈밴드 '프랜시스 시크'가 레트로 재즈풍의 음악을 통해 재즈 황금기 시대로 우리를 안내한다.



경기도립하모니 마스터시리즈 VI 멘델스존 4번 교향곡

일시 7월 9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B석 1만원
출연 멘델스존 교향곡번 (이탈리아) 외 지휘 성시연, 바이올린 솔로로 민츠 연주 경기도립하모니 오케스트라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세계적인 예술가, 불멸의 클래식 공연은 서울에만 있다? 클래식 재현을 목적으로 확대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바빈 레핀과 핀커스 주커만이 이어 솔로로 민츠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경기도를 찾는데 완벽한 테크닉을 선사하는 솔로로 민츠와 경기도의 호흡이 기대된다.



2016 경기도립하모니 지휘·작곡 마스터클래스 파이널 콘서트

일시 7월 21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무료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첼레, 슈만)피아노협주곡, 창작곡 등
출연 지휘 마스터클래스 참가자, 연주 경기도립하모니 오케스트라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7일간 경기도립의 지휘·작곡 마스터클래스를 거친 제2의 성시연과 김희태와 만난다. 오는 7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의 모든 과정은 공개로 진행되며 클래식계 관심 있는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경기도립무용단 환의, 그 미래를 보다 - 시즌 II

일시 7월 23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1만 5천원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원형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담긴 한국 춤 본연의 매력을 확인하는 무대.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일컫는 空靜無動(공정무동)'의 미학이 정선되어 바른 현대인의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요한 선비의 기품과 웅양이는 신명을 담아낸 한방들의 정가춤의 하나인 '동래학살'이 기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매일 찾아오는 행복한 선물 <작은 음악회> 국악 사운드 아트

일시 7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1층 1만원 / 2층 5천원
출연 경기팝스앙상블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문화가 있는 날을 신명나게 여는 '국악×밴드' 국악의 구수한 장단과 리드미컬한 밴드가 만났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팝 음악의 융합을 추구해 시대를 온 경기팝스앙상블이 국악과 팝의 클래식비례를 통해 보다 새로운 감각의 퓨전 국악을 선보인다. 당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움이 펼쳐질 무대! 새로운 자국이 필요하다면 이 무대를 놓치지 마시길.



뮤지컬 맘마미아!

일시 7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30일(토) 오후 2시·7시, 31일(일)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P 14만원 / RM 11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출연 최영원, 홍지민, 신동욱, 남궁훈, 이현우, 성기윤 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산나귀, 술가배, 인생은 멋진 거지! 거머쥐는 것 정말, 최고의 인생이야." '확실히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옮긴 무대 위 도나와 친구들이 지난 가수 시절을 되새기며 부르는 이 노래에 저절로 어깨가 들쭉거린다. 못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그들 ABA의 주옥같은 22곡과 만나는 무대! 모든 관심객정 내려놓고 행복해지고 싶은 이들에게 강력 추천.

경기실내악축제 with 핀커스 주커만

음악의 신전에 몸 바친 사제...
“지금도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글 정연옥 KBS 기자



하얗게 센 머리와 대비되는 긴장한 체격, 눈 아래 비스듬히 내려온 안경까지. 자장의 첫인상은 배우 닉 놀테와 흡사했다. 취재진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필 연습실을 찾았을 때 그는 경기필과 브람스 교향곡 1번의 1악장을 리허설 중이었다. 연습실의 풍경은 흡사 강의실에 가까웠다. 그는 특히 바이올린 주자들의 운자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지적했는데, 못내 성에 차지 않을 때는 직접 바이올린을 들고 시범을 보였다. 2악장 첫 소절에서는 현악군의 건조한 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갑자기 제1바이올린을 향해 초콜릿을 좋아하냐 묻기도 했다.

시종일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거장의 세밀한 주문을 그 즉시 구현해야 하는 단원들은 하얗게 긴장한 표정을 좀처럼 거두지 못했다. 그가 리허설 도중 미간을 찌푸린 순간은 단 한 번, 단원들이 아니라 촬영을 멈추지 않는 취재진을 향해서였다.

2약장 리허설이 끝난 뒤 휴식시간에 가진 인터뷰. 그는 경기필의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한국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기량에 관한 극찬으로 대담을 대신했다. 자신이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연주자들이 활약하고 있더라며, 그들은 늘 잘 훈련돼 있고, 매우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든금없이 중국의 연주자들은 한국의 수준을 따라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강조하기도 했다. 인터뷰가 성가시면서도 익숙한 스타답게



그는 짧은 질문에 풍성한 표정과 제스처를 섞어가며 수다스럽게 답했다. 자신처럼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더니 곧이어 정색을 하고는 그렇게 되기까지 대단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손가락을 허공에 똑똑 놀리라며 말했다.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지만 그 순간 문득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가 떠올랐다. 리히터는 생전에 쓴 에세이에서 평생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고백했다. 음악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저토록 진지하게 강조하는 핀커스 주커만의 연습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서둘러 물어서려는 그에게 다급히 물었다.



리히터는 꼭 하루 3시간씩 연습했다는데 당신은 어떠냐고, 그는 리히터라는 말을 듣고 순간 반가운 미소를 짓더니 곧이어 어이없는 표정으로 기자를 쳐다봤다. 당신도 밥을 먹고 잠을 자느냐는 질문을 들은 표정이었다. 당연히 매일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있으며 연습할 때 시계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연습시간도 그 못지않을 거라고, 지금도 연습을 통해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칠순의 거장의 내밀한 고백처럼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이 구도자의 식지 않는 열정은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몹시 궁금해졌다.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허공에 분산시키는 것 같은, 악명 높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벗어난 경기필이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하기도 했다. 주커만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제1바이올린은 흡사 실내악단처럼 밀도 높은 소리를 선사했다. 특히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에서 진가를 발휘한 주커만의 풍부한하고도 유려하며 탐미적인 음색을 아늑하게 받치는 경기필의 섬세한 배려가 단연 돋보였다. 반면 브람스 교향곡 1번은 다소 아쉬웠다. 주커만의 장악력은 안타깝게도 현악기 이외의 주자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호른의 잦은 실수는 금관의 전체적인 음색을 위축시켰고, 타악기의 존재감이 특히 미비하게 느껴졌으며, 4악장 피날레에서는 악단 전체의 앙상블이 잠시 붕괴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혼연일체가 되기에는 리하설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이 틀림없이 보였다. 그럼에도 거장의 존재감은 묵직하게 남았다. 경기필 정하나 악장은 주커만 같은 세계적인 거장과 리하설을 했다는 경험이 그 자체로 음악적인 성장이었다고 회고했다. 주커만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으며, 마치 인자한 선생님처럼 자신의 음악적 이상과 요구 사항을 단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 악장은 덧붙였다. 주커만은 오로지 자신의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방해하는 것들에게만 가혹하게 예민했다. 단원들에게 배운 친절이 취재진에게는 예외였던 것처럼 그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그 자신 이외의 누구의 접근도 차단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그의 혹독한 훈련 역시 편집중에 가까운 완벽주의에서 기인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경기필과의 호흡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실내악곡에서 보여준 윤기 있고 우아한 톤과 더불어 촌철살인의 어록으로 화제가 된 마스터클래스까지, 그가 왜 이즈하크 펠린과 더불어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지 여실히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기획으로 성사됐다는 사실. 대한민국 음악팬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 거장의 기백과 열정, 그리고 명불허전의 실력을 모든 감각으로 유감없이 경험할 수 있었다. 하루도 연습을 멈출 수 없는 기나긴 고행을 행복하게 수행 중인 사제와 같은 사람, 이 거장을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불러낸 대담하고 독심 있는 기획이 멈추지 않는 한, 경기실내악축제가 아시아무적 페스티벌의 새로운 주축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경기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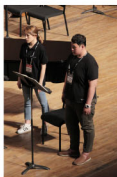
Riccardo Muti Italian Opera Academy in Gyeonggi



베르디 스페셜리스트
리카르도 무티와의 만남
놀랍고도 마법 같았던
8일간의 여정



지난 5월, 세계적 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았다. 지휘·성악·오페라 코치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15명의 아카데미 수강생이 선발됐으며, 무티와 함께 8일간의 수업이 진행됐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해석부터 표현법, 발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던 라카르도 무티, 오로지 베르디만 집중했던 그 시간이 선명한 음악의 아름다움, 후배 음악도들을 향한 그의 애정과 열정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

세계 최정상의 클래식 거장,
솔로모 민츠

Shlomo Mintz

젊은 세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행복





48년 전, 지휘자 주빈 메타(79)와 이츠하크 펠만(70)은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연주회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앓아누운 펠만. 고심이 많았던 메타는 유대계 음악 대부 아이작 스타인(1920~2011)의 충고를 받던 바이올린 신동 솔로모 민츠(59)로 펠만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화려한 비르투오소의 기교를 요하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딱 일주일 연습한 후 완벽한 연주를 선보인 민츠의 당시 나이는 불과 11살. '연주자들의 성공 관문'이라 불리는 뉴욕 케네디홀에서의 본역 데뷔 또한 16세에 해냈다. 거장들의 충고를 한 몸에 받으며 세계적 명성을 차곡차곡 쌓은 그가 오는 7월 9일 경기필하모닉과 한 무대에 오른다.

바이올린 신동, 하늘의 선택을 받은 그가 느끼는 음악은 무엇일까. 또 온라인 레슨 사이트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그의 행보가 궁금하다. 솔로모 민츠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소개한다.

2년 만에 내한합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늘 그랬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생활에 맞추며 지내고 있죠. 매우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것을 조금씩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투어 일정을 살펴보니 이번 경기필과의 협연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십니다. 한국 청중들과 어떤 교감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국인 팬들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해요. 저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저의 80년 인생과 데뷔 54주년을 한국 청중과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멘델스존의 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인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Brahms, Concerto for Violin in D major, Op. 77)에 대한 한국 청중의 관심이 큼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무대에 서게 돼 매우 기쁘네요. 제가 연주하게 될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말년의 아이작 스타인에게 배웠죠. 제 생각으로 아이작 스타인의 브람스는 매우 괜찮은, 아마도 최고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 팬들 앞에서 연주하게 돼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7월 1일에는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 일환으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운영한 온라인 바이올린 교습 사이트인 '솔로모 민츠닷컴(www.shlomo-mintz.com)도 그렇고 젊은 예술가 육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많은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을 다음 세대에 돌려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 혹은 최대한 값싼 금액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엽니다. 여기서 저는 음악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그들이 짊어질 책임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하죠.

당신의 스승 중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주자는 아이작 스타인입니다. 물론 클라우디오 아바도, 주빈 메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의 많은 지휘자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들은 저에게 예술가로서 사는 법 외에도 '명성'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배움이 있었기에 제가 젊은 세대에 대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켄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한국 출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연주자들의 감정은 무엇이며, 어느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수준 형태의 예술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경쟁에 참여하거나 승리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한 빠르게 모든 음표에 맞춰 연주를 하는 것은 성숙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솔직히 말하면,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것은 진정한 예술가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알파고 때문에 IT의 활용 범위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앞서 말한 사이트(솔로모 민츠 닷컴)로 예술과 IT의 접목에 있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니다. 더욱이 클래식에서의 IT를 활용한 대중과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이었기에 더욱 신선했습니다. 앞으로 예술과 IT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지 바라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에서 선보이고 있는 정보기술과 예술의 결합에 대한 관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주요 형식과 개념은 슈퍼컴퓨터 Deep Blue(체스를 하는 IBM 컴퓨터 프로그래밍)나 정보기술이 모방할 수 없는 영혼을 현대 기술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형이상학적인 소통, 즉 영약, 말하는 기술, 조정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소통뿐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신경 쓰지 않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감정이나 음악을 생각하죠. 이 형이상학적 소통에는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무한대 소통을 연구해 볼 수 있죠. 현재의 정교한 정보기술과 기술 너머 형이상학적 영역의 결합을 위해 저는 사람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이 형이상학적 영역의 아름다움과 과거 작곡가들이 미래의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해오던 여러 활동 중에 희망의 바이올린(Violins of Hope) 프로젝트가 눈에 띕니다. 작년 12월 초 이 프로젝트의 음악회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홀로코스트로 목숨 잃은 젊은 연주자들의 바이올린을 지난 20여 년 동안 수집해 왔는데, 이는 평화와 전쟁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치는 거울이지요. 제가 말하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런 바이올린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바이올린'이란, 유대인 압네 웨인스타인이 1906년부터 독일 나치 지배 기간 이후 버려져 있던 바이올린을 수집해 복원하는 작업으로,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유대인을 애도하는 프로젝트이다.

청중들에게 어떤 연주자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과거의 음악가들로부터 더 나은 삶,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인간의 삶, 과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작가 황경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





일상에 지칠 때 우연히 접한 짧은 문장은 생각지 못한 큰 위로를 전한다. 별다르지 않은 소소한 일상을 풀이낸 글은 더욱 그렇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특유의 감성으로 담아낸 황경신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유독 특별한 위로로 기억된다. 삶을 글로 옮기고, 그 글처럼 살아가는 그녀의 달지도 쓰지도 않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다.

내가 바라는 나를 찾기 위한 내려놓기

아따금 '그때, 그럴 때도 있지, 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처럼 공감 가는 글을 쫓다 보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이름이 있다. <생각이 나서> <밤 열한 시> <슬프지만 안녕>의 저자 황경신이다. 이처럼 작가로 세간에 이름을 알린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를 이야기할 때 떼어놓을 수 없는 건 <페이퍼>라는 잡지일 것이다. 1995년 '스트리트 매거진'을 표방한 문화지 <페이퍼>를 창간해 편집장으로 제작을 총괄하며 쌓아온 특유의 감성은 알음알음 독자들 사이에 견고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미 유명 매거진 기자로 굼직한 이력을 쌓아가던 중 별안간 사표를 던지고 잡지 창간에 뛰어들 계기는 무엇일까? '그전까지의 직업은 삶에 별 의미가 없었다'고 말할 만큼 새로운 도전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주었다.

"관심도 없는 내용의 글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럴테면 패션 분야의 취재를 맡아야 할 때는 내키지 않을 때가 많았죠. <페이퍼>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적절한 기회를 만나 안락한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단념해 이른바 '황경신 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완성했다.

경계 너머 작은 위로와 격려를 건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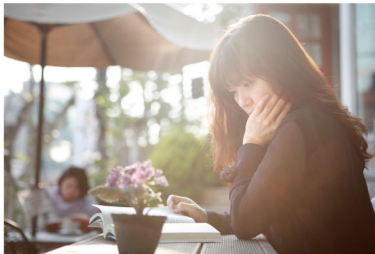
<페이퍼> 편집장 자리를 내려놓은 후, 그녀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거듭해나갔다. 강연, 사인회, 낭독회 등 종이 밖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와 공감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도울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책을 읽고 좋아하는 화가가 생겼다는 독자들 만났을 때의 벽찬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그녀의 소망은 '사람을 잇는 다리'와 같은 책을 쓰는 것이다. 지난 봄, 그녀는 책과 음악으로 세상을 잇는 사랑방을 마련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바로 경기도문화의 전당 2016년 브랜드 공연 '화양연화'이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와 공감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도울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팔청춘’, ‘맨발의 청춘’, ‘서른 즈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 등 ‘나이’를 화두로 연간 4회 진행되는 공연은 그녀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이다.

“처음 연출을 맡게 된 공연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죠. 하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재밌게 일도 하고,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연세부터인지 포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던 20~30대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숨기며 살아가는 40~50대까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보듬어줄 소통을 찾기 힘든 시대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을 주축으로 작가, 뮤지션 등 게스트와 삶의 고민을 나누는 화양연화는 세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따뜻함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오늘이 화양연화

“살아가면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경험했고 경험하고 경험해야 할 ‘나이’가 주제가기에 관객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정세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니까요.”

두 번째 공연 준비에 한창인 황경신이 이 시대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녀의 대답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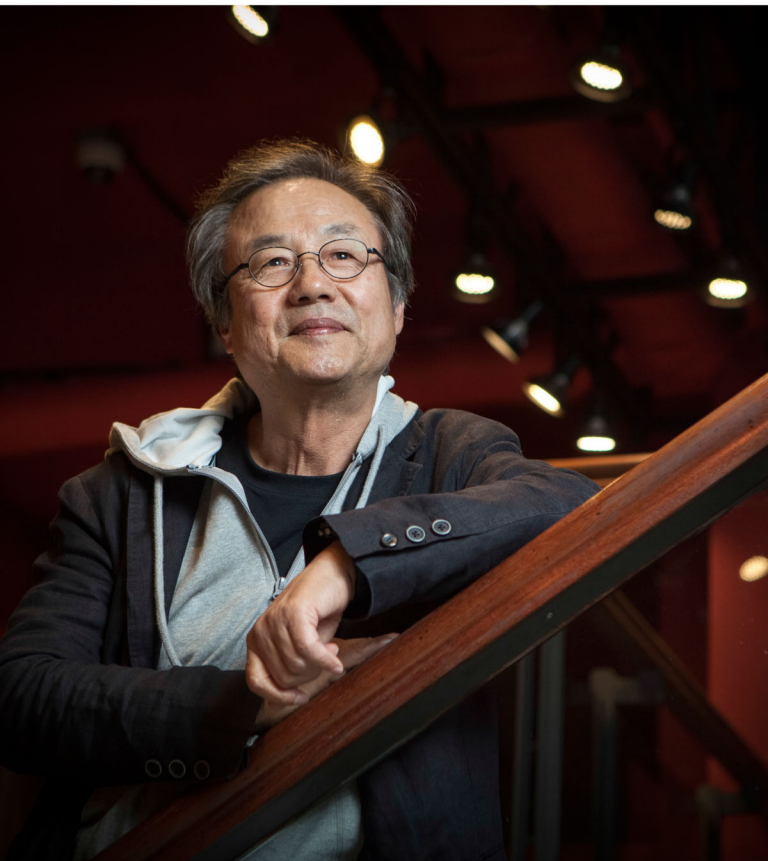
“좋아하는 일을 하다 되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일을 잘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녀는 또한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등 일명 ‘죽기 전에...’시리즈를 접하면 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덧붙인다.

“꼭 가야 할 곳, 봐야 할 영화, 먹어야 할 음식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하는 숙제라도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정해놓은 목표를 따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청춘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화양연화를 가리켜 대개는 젊은 시절 한때를, 더러는 훌쩍부한 장년 시절을 꼽을 수도 있다. 돌아보면 별반 달라진 건 없다. 그때 좋았던 것이 지금도 좋고 그때 싫었던 것은 지금도 싫을 뿐이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 20대진 60대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있기 마련인 것...’ 도전을 통해 쓰고 싶은 글과 살고 싶은 삶을 완성해가는 황경신의 인생은 어째도 내일로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바로 지금이 화양연화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시대를 막론한 家長의 아이콘, 아버지 그 위대한 이름에 붙인...

지난 4월 23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마친 <경기필 시니어 콘서트-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객석을 온통 감동으로 작신 이번 콘서트는 음악, 내레이션, 연기 등이 어우러진 음악극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아버지들의 사랑과 아픔, 애환을 다루어 화제를 모았다. 이날 공연의 중심은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정동환. 그에게 듣는 '다른 듯 같은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 당신을 위로합니다’라는 희망 메시지를 담은 이번 콘서트는 경기필이 우리나라 성장 주역인 시니어들을 위해 마련한 세대공감시리즈 중 하나. 매년 성시연 단장과 단원들의 아름다운 재부 기능과 함께 전석 초대 형식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공연이다. ‘옛 친구 행진곡’,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니 중 간주곡’, ‘지붕 위의 바이올린’ 등 주옥같은 명곡 연주와 연극 그리고 해설을 곁들여 이 시대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콘서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레이션은 관록의 배우 정동환이 맡아 관객의 호응이 더욱 높았다.

배우

정동환



경기필에서 이번 공연을 위해 아버지상에 어울리는 배우 섭외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매력은 무엇일까요?

매력은 무슨(웃음) 그리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아버지 역을 했어도 나 스스로는 딱히 내놓을만한 아버지상은 없어요.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에서는 긍정적이고 달달한 아버지를 연기했고, '프라하의 연인' 부터는 캐릭터 강한 아버지 역을 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 성격에 따라 극중 캐릭터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저의 양면을 전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내레이선 중 베트남전 참전 등의 내용은
정동환 선생의 청년 시절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온 남성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남다른 소화가 있다면요?

처음 대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1971년에 월남 참전을 다녀왔어요. 당시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학비에 노상 조들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택한 것이 군 입대였죠. 제대 후에도
방법이가 급해서 1973년 동아방송 성우
6기생으로 입사했는데, 조작생활이 생리에 맞지
않아서 1년 만에 그만두고 오키나와에 가서
노동자로 일했어요. 조직에 몸담으면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어려웠거든요. 몇 달 일하고 돈을 좀
만지면 귀국해서 연극을 했고 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오키나와로 날아가 돈을 벌어왔고...
먹고사는 문제는 내 젊은 날의 끊임없는
화두였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내 영혼을 채워 줄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는 여전히 내 발목을 잡았고... 이것이
인생이죠. 요즘 젊은 아빠들은 많이 달라진
것지만.

그렇다면 본인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웃음).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나는 땀집
아빠예요. 다만, 세상의 편견이나 잣대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은 종종 해요. 내가 신앙처럼
굳게 믿는 것은 '바람직한 삶'보다는 '내가 바라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아버지인지

세상의 편견이나
잣대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은
종종 해요.
내가 신앙처럼 굳게
믿는 것은
'바람직한 삶'보다는
'내가 바라는 삶'이에요.

모르겠지만, 난 내 아이들의 소신을 믿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요. 아,
출세하고 돈을 잘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럼 됐죠,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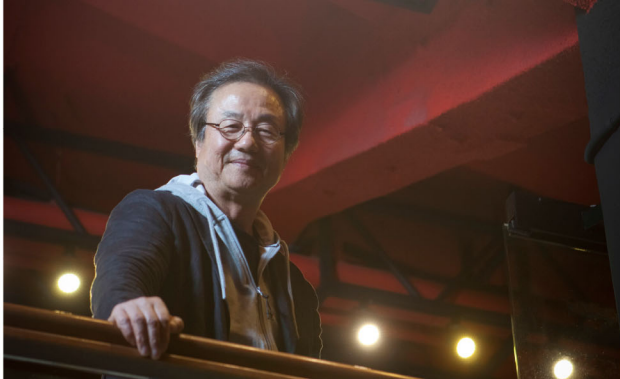
수십 명의 경기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나요?

광복 70주년 기념 콘서트 사회를 볼 일이
있었어요. 일정이 연기되어 결국 무산되긴 했으나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리하설을 하면서 음악
무대를 익혔고, 또 바르코 음악팀과 공연도 했었고,
주변에 오페라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선지
음악 무대가 그리 낯설지 않아요. 다만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의 내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경기필
오케스트라 연주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음악이나 연가나 창작의 고풍이란 그곳에 담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역할이 이번 공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기를 바라요.

배우 정동환이라는 이름은 드라마와
스크린뿐 아니라 연극 애호가를 사이에서
신뢰의 이름으로 굳혀졌습니다.
관객의 기대와 믿음을 이어가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연극은 참 재미있어요. 드라마나 스크린과는
확연히 다른 카타르시스를 주죠. 무대에 오를
때 마다 작두에 올라선 것 같은 긴장감을 주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연극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시작한 연극은
내 생애를 리드하는 항해라고 할까. 연극이
좋아서 대학을 갔고, 연극이 하고 싶어서 남품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나는 연극을 섬기는 사람,
광신자라고 비웃어도 좋아요. 사색과 고통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끝냈지만 그의 그림은 영원히 남은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이 공허하고



보잘 것 없게 보일 때에도 신념과 열정을 가진 영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처럼 나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무대에 올랐다는 것이 관객들과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선가, 2014년 <단테의 신곡>, 최근 한일 공동 창작이었던 <태동기담>, <고도를 기다리며> 등 굵직한 연극, 섀 연극에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품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두시지요?

쉽고 편안한 연극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배우로서 자의식이 강하다고 해도 무어라 할 말은 없는데, 대사를 줄줄이 외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기 싫어요. 배역 하나를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밤도 먹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게 몰입하는 것이 배우예요. 우리가 왜 연극을 하겠어요, 누군가는 꼭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발전하고 자동화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은 더 없어져 가지 않나요. 내 영혼은 없고 세상의 영혼에 뺏겨서 사는 게 아난가 싫어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고민하고 한번 더 세밀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이 우선되는 연극을 하고 싶은 거죠. 엄청나게 막대한 분량의 사극 <단테의 신곡>이나 인간의 로고스가 만들어내는 과학이나 기술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주어 그 허기를 메우고자 갈망했던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러했어요. 앞서

말한대로 누군가, 혹은 사회 자체가 만들어 놓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세상이 그리운 겁니다. 연극은 다른 장르에 비해 이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지킬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철단을 짚는 세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사람을 찾는 때가 돌아올 것이고, 공감하는 관객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연극을 하고 싶어요.

반세기 내공을 지닌 대 배우다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이 시대 아버지를 위한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년 전쯤 네팔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내리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만큼 좋은 형편의 나라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나라를 혹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다른 형편을 비교하며 우울해해요. 비교 자체가 사실은 공포의 대상인데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지레 겁먹지 말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오늘을 최선으로 알고 무한질주를 하시길 바란다는 것. 이 시대 모든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우리 아이의 예술적 재능

어떻게 발견할까? 어떻게 키워줘야 할까?

글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호원대 공연미디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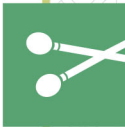
얼마 전, 뉴스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미래의 직업군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알파고의 등장으로 막연했던 미래의 영역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사'자로 끝나는 대부분의 직업, '변호사', '교사', '편사', '의사', '기자' 등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은 의료기들이 의사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고, 미국 월가에서는 증권뉴스를 컴퓨터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 놀라울 결과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직업군들은 매우 놀랍습니다. 1위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비롯하여 안무가, 무용수, 화가, 배우 등 대부분 예술과 관련된 직종들이 미래사회에서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그 막막함이 바로 예술을 이해하는 가장 큰 힌트이며,
 동시에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발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술은 '정답'이 없는 유일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의력과 통찰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조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이 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술의 힘이 어린이들의 삶과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의 예술적 재능을 내가 몰라보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발견해줘야 하는가? 그리고 혹여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나는 무엇을 해 줘야 하나? 수학이나 과학이라면, 영어라면 뭔가 정답이 있거나 코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은 뭔가 어렵고 추상적이고 정해진 무엇이 없으니 참으로 막막하실 겁니다. 그 막막함이 바로 예술을 이해하는 가장 큰 힌트이며, 동시에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발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술은 '정답'이 없는 유일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재능, 예술적인가 아닌가?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째, 엘리트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항상 엘리트주의적 교육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판단하는데도 이것으로 아이가 일등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편견이 앞서게 됩니다. 예술적 재능을 판단하실 때 그런 편견에서 해방되십시오. 먼저 부모님 자신이 예술 엘리트주의를 경계하고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녀들에게도 기능적 예술의 접근에서 예술 자체를 즐기는 미적 체험의 관점에서 예술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입체파 화가 피카소는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천재였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들은 바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술적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으로 전이되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예술적 재능을 더욱 발휘하고 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술적인 재능과 그들의 예술적 기술 사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술적 재능이란 어린이 스스로 어떤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예술적 형태로 전환하여 발현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잘 보고 피아노를 잘 치기보다는 걸음걸이에서 리듬감을 공원에서 새의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음악적 발견을 잘하는 어린이, 그림을 그릴싸하게 그리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드러내는 미술활동, 들뜬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 속에서 발견한 것들, 사물을 현상을 바라보는 그 아이만의 독특한 시선이 드러나는 작품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예술적 재능입니다. 셋째로 예술의 환경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재능, 어떻게 키워줘야 할 것인가?

첫째,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 후에는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화에서는 반드시 자녀들이 학습이나 교육으로써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미술관을 가서 화가의 이력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색을 보았는지? 그림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떠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대화가 아직 서투른 연령층은 경험 후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들과
경험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장르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술이나 춤, 악기 등 자녀가 이미
장르가 정해진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르 안에서
더 확장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악기들을 다루는 경험을

갖게 한다던가, 미술에도 회화의 영역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셋째, 예술의 영역뿐 아니라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적 질문들과 책,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혀주시십시오. 예술은 결국 삶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온 자신들만의 질문이나 시선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기능만으로는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생각하는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녀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질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술을 잘 해내는 것보다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십시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예술교육 센터인 핀란드
헬싱키의 '아난탈로' 설립자인 마리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경험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교육이다. 예술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실패자란 있을 수 없다. 예술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있지도 않고,
또 잘 배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예술은 진정한
배움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다.
예술은 배우는 경험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에 믿음과 성공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술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예술은 나와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진정한 나를 찾는 활동입니다.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자녀들이 미래에 예술 활동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스스로 헤쳐
나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바로 부모님
스스로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 더욱 쉬워질 뿐 아니라 추후
자녀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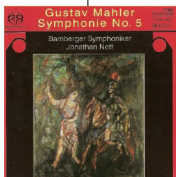


명반으로 미리 만나는 〈경기필 마스터 시리즈 V·VI〉

글 유윤종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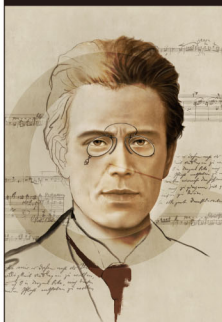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6, 7월 경기필 마스터 시리즈 삼차림이 풍성하다.

6월 8일 〈마스터 시리즈 V〉에서는 19세기 말 황혼 녘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등장한 후기 낭만주의의 결실 두 작품을, 7월 9일 〈마스터 시리즈 VI〉에서는 베토벤의 직접적 영향 아래 세상에 나온 19세기 전·중반기의 명작들을 조명한다. 음악팬의 특권 중 하나는 공연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음반으로 작품의 전모를 살피고 실제 연주에서 비교해보며 이해의 즐거움과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 두 차례의 공연에서 접하게 될 레퍼토리를 음반으로 먼저 만나본다.



1. 조나선 노트 지휘
밤베르크 교향악단(Tudor)

경 기 필 하 모 닉 마 스 터 시 리 즈 V



더없이 화창하고 명쾌한 악장부터 클라이맥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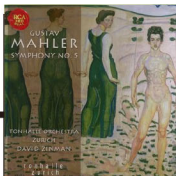
6월 8일 연주될 말러의 교향곡 5번은 그의 모든 교향곡 중에서 1번 '거인'과 함께 가장 친해지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러가 신부 알마를 향한 '연애편지'로 쓴, 누구나의 귀에도 달콤한 4악장 '아다지에도'가 있고, 베토벤의 5번을 계승하겠다는 듯 기억하기 쉬운 셋잇단음표로 시작하는 1악장이 있다. 전곡의 구조도 아들게 시작해서 더없이 화창하고 명쾌하게 끝나 베토벤 이후 교향악 전개 원리의 표준이 되는 '암흑에서 광명으로'의 발전 원리를 계승했다. 감정의 낙차가 극한까지 벌어지는 후기낭만주의 시대에, 장송행진곡으로 시작해 승리의 코랄까지 보여주는 교향곡이라면 악단의 색깔 또한 어둠과 밝음의 콘트라스트를 어느 작품보다도 극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의 3, 4번이나, 전체적으로 어두운 6, 9번 교향곡과는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다 보니 광대한 음반 목록 중에서 함부로 결정판을 꼽기란 어렵다. 팔러 팬들의 감식안과 취향은 천차만별이며, 연주마다 개별 팬에게 다가가는 매력 포인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연주라고 해서 '베제'의 뜻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2010년대에 나온 최신의 성과 중에서는 조나선 노트 지휘 밤베르크 교향악단(Tudor)⁹⁾과 유카페카 시라스테 지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Profil)⁹⁾, 데이빗 진먼 지휘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RCA)⁹⁾의 음반을 꼽아보고 싶다.

노트-밤베르크의 음반은 잘 조여진 합주가 깊은 인상을 준다. 1, 2악장으로 이루어진 1부는 황량함이 진하게 느껴질 정도다. 아쉬움이라면 현의 양감이 약간 부족해 인원이 더 많았어도 좋았을 듯하고, 금관은 솔로에서 조금씩 매끈함이 부족하다. 그러나 합주에서는 아주 잘 맞았다고. 시라스테-뮌헨의 앨범은 지휘자가 악단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어 취약피랄하는 호흡이 좋다. 공감으로 가득한 질풍 같은 2악장이 인상적이고, 클라이맥스에는 빛을 반짝 터치는 듯한 영감이 있다. 단 종종 말라가 의도적으로 깔아둔 거친 소리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3. 데이빗 진먼 지휘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RCA)

진먼-취리히 음반은 악단의 기능성과 오디오 측면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녹음이 완벽한 밸런스와 정밀한 해상도를 자랑한다. 못 들던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 악단으로서도 아주 준비를 많이 한 정밀한 합주를 들려준다. 지휘자의 자아가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곡의 해석에 있어서도 과부족이나 지나친 허식은 느껴지지 않는다. 4악장의 산들된 정밀 합주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저평가되었던 신보라 할 수 있다. 위 3장 중에 노트와 진먼은 전집이 완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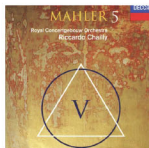
2. 유카페카 시라스테 지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Profil)

말러 교향곡 5번

정명훈 지휘 서울시립교향악단(DG)⁹⁾은 어떨까? 정명훈 특유의 그라베(Gravity), 무게감이 잘 살아났으며 지역이 강조된 사운드와 함께 묘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4악장에서 현의 포장이 살아있기로는 벤스타인, 진먼과 더불어 '3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를 밀고 당기는 완급이랄까, 템포의 미세 설정이 확실히 개성 있다. 표준적인 명연은 아니다. 합주도 시종일관 완벽하지는 않다. ' 좋아하던가 아니던가'.



4. 정명훈 지휘
서울시립교향악단(DG)



5. 리카르도 샤이 지휘
로열 콘서트헤보(데카)



6.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DG)

이들 연주보다 한 세대 위로 올라가 보자.
리카르도 샤이 지휘 로열 콘서트헤보(데카)는
사운드가 풍성하면서도 예각(銳角)이 분명하다.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진면과
더불어 가장 추천할 만 하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DG)는 한국에 처음 소개된 이 곡의 앨범이다.
벨런스가 최상이던 시기 베를린 필의 면모를
심분 감탄하며 들어다볼 수 있다. 2악장의
잠아먹을 듯한 야성은 다시 출현하기 힘들며
말리라도 감탄하지 않을까 싶다.



7. 클라우스 텐슈테트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MG · 위니)

클라우스 텐슈테트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MG · 위니) 앨범은 이 곡의
기념비적인 명연 중 하나로 마땅히 기억해두어야
한다. 깊은 공감에 바탕을 둔 해석, 밀도있는 현의
집중력있는 사운드, 한껏 각성된 금관 등 감상자가
긴장을 풀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로저 노링턴 지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헨슬러) 앨범은 따로 쟁거들 '별식' 같은 존재다.
말리 시대에 현이 비브라토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지휘자의 소신에 따라 연주하므로 현의 양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지는 편이다. 그의 생각에 찬성하든 아니든 새로운 각도에서 작품을
들어다볼 수 있게 한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각각 뉴욕 필과 빈 필을 지휘한 연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번스타인의 연주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른 여러 연주를 들어보고
나름대로의 관점이 성립된 뒤에 들어보기를 권한다.



8. 로저 노링턴 지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헨슬러)



9.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
빈 필하모닉

같은 날 연주되는 베르크의 '7개의 초기 가곡'은 아쉽게도 오케스트라 반주의 음반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마침 뉘른베르크 심포니와 협연한 소프라노 김수연의 음반(소니)⁹가 곧 발매 예정이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음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아노 협연 앨범들도 대부분 비교적 최근 나온 산물인데, 소프라노 도로테아 퀴슈만과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즈코(데카) 앨범이나 테너 아놀트 베주인, 피아니스트 유라 마르굴리스가 협연한 음반(원스) 모두 반주부는 과감성이 떨어지는 반면 독창자는 표정이 강해 다소 걸도는 느낌이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라인가우 페스티벌 상황 연주로 들어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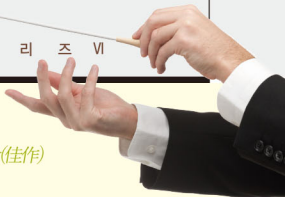


1. 일반 베르크 7개의 초기 가곡
소프라노 김수연(소니)

경 기 필 하 모 닉 마 스 터 시 리 즈 VI

젊은 작곡가의 내면에 강렬한 영향을 끼친

여행의 경험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가작(佳作)



7월 9일 무대에 오르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로 들어가 보자. 갓 스물이 된 젊은 작곡가의 내면에 강렬한 영향을 끼친 여행의 경험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가작(佳作)이다. 최근의 성과 중에서는 요스 판 이메르세일 지휘 아니마 에테르나(채널 클래식스)¹⁰ 음반이 온화하고 명료한 호연을 보여준다. 템포는中庸적이고, 소리의 공간감을 살리는 이 지휘자의 장기가 잘 발휘된다. 한편 프랑스 브뤼헨 지휘 18세기 오케스트라(글로사)⁹ 음반은 온화함을 넘어 약간 맥없이 들린다. 멀리서 잡은 듯한 음향이 독특한 매력을 전해준다. 현대 악기 연주 중에서는 주세페 시노폴리 지휘 필하모니아(DG)⁹가 공동인 명연주를 들려준다. 3악장의 느릿한 템포와 저녁 어스름처럼 부드럽게 출몰하는 베이스 선은 압권이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DG)¹⁰는 넓게 펼쳐진 현의 성격이 파르타다 잘 살아나 각기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1. 요스 판 이메르세일 지휘
아니마 에테르나(채널 클래식스)

2. 프랑스 브뤼헨 지휘
18세기 오케스트라(글로사)

3. 주세페 시노폴리 지휘
필하모니아(DG)

4.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DG)



동화적 상상력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미하엘 엔데’ 한 걸음 더 들여다보기

글 김소정 연출가 / 사진 최영재



미하엘 엔데는 나에게 '모모'라는 소설로 다가왔다. 모모는 내게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였고, 모모는 내 어릴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의 멜로디 중 일부였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찾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난 그 모모가 처음엔 미하엘 엔데의 모모인 줄 알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그때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시기도 아니었고, 노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만큼 열정이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막연히 가사가 좋아서 또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던 철부지 소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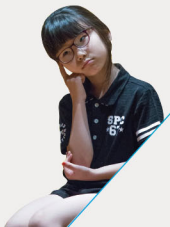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엔가,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외투를 입은 작은 곰솔머리 아이의 뒷모습이 그려진 노란 책 한 권을 만났다. 바로 소설 모모(MOMO)였다. 그때 난 소설의 '모모'가 내가 알고 흥얼거리던 노랫말 속의 '모모'라고 믿었다. 표지의 느낌이 노랫말과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다. 꾸역꾸역 소설을 읽어 가면서도 내가 아는 노랫말 속 모모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의 내게 엔데는 참으로 어려운 작가였다. 그렇게 엔데를 처음 만나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 마법의 실타 두 조각 등 초등학교들을 위한 추천 도서의 목록에서 미하엘 엔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몇 해 전, 지인의 워크숍 공연 만들기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곰돌이 위ഴ살의 여행'이라는 미하엘 엔데의 또 다른 책을 알게 되었다.





‘왜 사는가’ 철학적 주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다

귀엽지만 이제는 몸이 늙아 버린 곰 인형이 있다. 자신을 상표에 있는 단어 그대로 발음하여 부르면서 ‘위셔블’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 주인은 훌쩍 자라 학교생활로 바빠 자신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소파 한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던 위셔블에게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말을 건다. 거기 앉아 도대체 무얼 하고 있냐고 묻더니 ‘그냥’ 있을 뿐이라는 위셔블에게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다니! 년 바보야!”라고 맹비난을 한다. ‘바보’이고 싶지 않았던 위셔블은 자신이 왜 사는지 알기 위해 길을 떠난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며 일으키며 비로소 위셔블이 왜 길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여정 중에 만났던 동물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생쥐, 암탉, 꿀벌, 원숭이, 나비...방울뱀 그리고, 소녀. 위셔블은 만나는 동물마다 물어보지만 그들은 재미다 사는 이유가 있고, 그들의 이유는 위셔블이 할 수 있는 일과도,





하고 싶은 일라도 영 판판이다.

그리고 곰돌이 워셔블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길을 나아갈수록 워셔블은 깊은 상실에 빠진다. 지혜로운 코끼리에게 넌 영혼 없는 '물건'일 뿐이라는 소릴 듣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던 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동화는 끝내 워셔블이 듣고 싶어 하는 이유를 속사원히 알려주진 않지만 새로운 동물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생각거리들을 한 아름씩 안겨 준다.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이 안내하는 깊은 사유(思惟)의 세계가 절대로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와 다른 삶의 이유를 각자 갖고 있지만 다르다는 차이가 있을 뿐, 결코 그들의 삶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히려 통쾌함과 짜릿한 전율마저 일었으니 이 동화는 내게도 큰 교훈을 선물한 셈이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만나는 대상들에게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을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나는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다.

아동 국악극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공감하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다양한 답변이 엔테의 동화책 속 등장인물들의 그것과 맞아떨어진다. 엔테의 동화는 읽는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받아들이고 감동하는 부분이 모두 달랐다. 나는 파리에게 따귀로 복수한 워셔블을 보고 통쾌함을 느꼈는데, 누구는 워셔블 자신을 인정해주는 소녀의 장면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햇빛 아래 느긋하게 선댄을 즐기는 도마뱀이 부럽기도 하고,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는 코끼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도 있었다. 난해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이만큼 어렵지 않게 풀어 낸 것은 위대한 작가 미하엘 엔테의 힘이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엔데의 이 철학 동화는 공연으로 만들기에 정말 좋은 텍스트였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어린이를 위한 국악뮤지컬 연출 설비를 받았을 때 나는 엔데의 곰돌이 워서블의 여행을 떠올렸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들을 만나며 작은 워크숍 공연을 만들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물론, 극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재미 또한 느꼈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토록 다양한 색깔의 감동과 공감이 그려진 이야기가 국악뮤지컬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공연을 만들었을 당시 조금 더 한국적 정서와 어울리는 캐릭터를 찾아보자는 의견에 몇몇의 캐릭터는 재창조되기도 했다. 도마뱀 대신 돼지, 코끼리 대신 황소 등의 캐릭터가 그렸다. 사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던 곰돌이 워서블이 이번 공연에서는 친구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동화의 구조는 살리워 공연을 통해 담아내는 이야기엔 다소 변화를 주었다. 장난감 가게에서 언제나 마뽀람을 당하던 곰 인형이 여행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친구라는 의미를 관객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 주는 친구, 나와 함께 오래도록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담고자 했다.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정한 친구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없는 '물건'일 뿐이라는 소릴 듣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던 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동화는 끝내 워서블이 듣고 싶어 하는 이유를 속사원히 알려주진 않지만 새로운 동물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생각거리들을 한 아름씩 안겨 준다.

미하엘 엔데에 대하여

1929년 남부 독일 기르마슈-파르텐키르헨에서 초현실주의 화가인 에드가 엔데와 역시 화가인 루이제 바르톨로메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나치 정부로부터 예술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아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의 예술가적 기질은 엔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글이든 글, 그림이든 그림, 연극 활동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엔데의 재능은 그림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학, 연금술, 신화학도 두루 정통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특히 컸다. 2차 세계대전 즈음, 발도르프 스쿨에서 공부하다 아버지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되자 학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나치의 눈을 피해 도망쳤다. 전쟁 후 뮌헨의 오토 팔렌베르크 드라마 학교에서 잠시 동안 공부를 더 하고 나서는 곧바로 진짜 인생이 있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연극배우, 연극평론가, 연극 기획자로 활동했다.

그는 1960년에 첫 작품 『7관자 대여행』으로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는데, 그 후 1970년에는 『모모』를, 1979년에는 『곰돌이 워서블』을 출간함으로써 세계 문학계와 청소년들 사이에 미하엘 엔데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 외에 『오일리아의 그림자 극장』, 『마법의 수프/행운의 비밀』, 『보물달의 전설』 등 여러 작품을 발표하면서 철학이 있는 판타지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끌어, 즐거운 여행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1995년 미하엘 엔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의 언론들은 그를 단지 작가로서가 아니라 '동화라는 수단을 통해 돈과 시간의 노예가 된 현대인을 비판한 철학자'로 재평가하여 엔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출처 / 두산대백과



예술의 쓸모

글 송형국 KBS 기자, 영화평론가

바다가 하늘보다 어둡다. 새벽인 모양이다. 밤을 지새고 난 시린 바다는 저리도 검푸르다. 며칠 밤을 저렇게 웅크렸을까. 이 그림에는 두 가지가 없다. 땅과 얼굴. 기다리는 이들은 물이 아닌 물을 담고 있다. 마음은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저 밑으로 내려갔을 터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서 지리고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304 명이 저 밑에서 그러고 있을 수 있느냐고 그림은 되물을 것이다. 그림을 보는 우리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은 과연 어디인지 기어이 질문받는다.



《기다리는 사람들》- 박문태 세월호 희생자 추념전 '사물의 동행' 전시

기다리는 일박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들의 마음은 진작에 저 검은 물 밑에 잠겼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가족에게 보여주고 그 시선을 돌려받는 일 모두를 해냈어야 할 얼굴은 목적을 상실한 채 함께 묻혔다. 그렇게 이들은 더딜 땅과 보일 얼굴을 잃었다. 이 그림이 더욱 슬피보이는 것은, 원근감이나 입체감을 살려 한 무리의 사람들을 그린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각 개인을 바다 위에 띄워놓아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작거나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사태는 '1건의 참사'가 아닌 304명 각각의 우주거 침몰한 일이다. 우리는 개체로 고립된 저 주름진 뒷모습을 향해 언제 어떻게 손길을 내밀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앞으로 나가자는 이의 발길을 붙든 다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내놓는 일. 이것이 이 그림의 명백한 쓸모다.

예술은 해서 무엇에 쓰나고 말하는 적지 않은 사람과,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엔 있다. 쓸모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은 이들에겐 뜬구름에 불과하다. 예술은 쓸데가 아주 많으며, 먹고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뒤로 제쳐두면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요즘 느낀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여겨온 -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든지, 아이들은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위험하지 않다든지 하는 - 인식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나의 당위와 타인의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돌아봐야 한다. 각각 가고 싶은 쪽만 향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경제가 가속제달을 밟을 때 성숙한 문화는 제동장치가 된다. 정치가 운전대를 잡고 전진하려 할 때 예술은 후사경이 돼 뒤를 보여준다. 브레이크와 기어가 없는 자동차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문화예술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이
무엇을(what) 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삼키는 대신,
문화이 할 수 있는
무엇(something)을 찾아
기꺼이 탐험에 나서야 한다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래와 모래 사이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모래와 모래 사이가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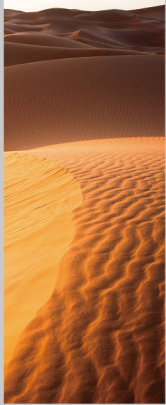
모래와 모래 사이에

사이가 더 많아서

모래는 사막에 사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 이문재, 「사막」



사막에 모래보다 사이가 더 많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모래알 중에 1번 모래알과 2번 모래알 사이가 있고, 1번 모래알과 3번 모래알 사이, 1번과 4번 사이
한 개의 모래알은 이렇게 무수한 모래알들과의 사이가 있다.
2번 모래알은 또 그만큼의 사이를 갖는다.
3번, 4번, ... 1억 번 모래알 모두 각자가 그렇다. 모래알 하나하나의 덧셈으로 헤아릴 수 있지만 그들의 사이를 파악하는 일은 곱셈이 동원돼야 가능하다. 저 바다를 딛고 허영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것처럼, 전체가 아닌 개체 하나하나의 사이를 모두 곱셈이 생해야 한다. 무심한 낙타 한 마리가 밟고 지나친 자리라면 그들의 사이는 송두리째 바뀌어 다시 뗫어질 것이다.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나와 내 주변의 관계는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내가 몰랐던 타인들끼리의 역학관계가 내 삶에 침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의해 사이가 변하기도 한다. 그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덧셈으로만 파악하려다 스스로를 고되게 한 건 아닌지, 내 옆 사람이 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맺고 있는 술한 관계들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려 한 건 아닌지. 시에게 혼쭐이 난 기분이다. 이문재 시인은 지난 2014년 내놓은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의 맨 앞 작품으로 이 시를 발표했다. 그는 10년 만에 시집을 펴내며 '시인의 말'에 이렇게 썼다. "사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대신 시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무엇’은 각각 다른 뜻의 어휘로 보인다. 우리는 문학이 무엇을(what) 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삼키는 대신, 문학이 할 수 있는 무엇(something)을 찾아 기꺼이 탐험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문학 속으로 들어가 문학으로부터 종종 찬란한 환대를 받고 때로 꾸지람도 들으며 스스로 용도를 발견해야 한다.

문학의 숲 속에 들어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머리에 쌓는 지식과는 다른 종류다. 우리의 뇌가 그곳에서 얻는 쓸모는 축적이 아니라 뿔뿔이다. 서로 만난 적 없던 신경세포들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두뇌회로를 만드는, 다른 차원의 효용이다. 우리가 리어왕과 코렐리아 공주의 속마음을 오갈 때, 풀 한포기가 눕는 걸 보며 세상의 바닥까지 치달는 시인의 심정과 마주할 때, 그때마다 우리 머릿속 뉴런들은 낙타가 밟고 지나간 사막의 모래처럼 소용돌이치며 새 관계를 형성한다. 기존에 만나지 않던 다른 것들이 만나 가지 있는 결과물을 맺는 일을 우리는 종종 창의를 부른다.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그토록 부르는 그 창의 말이다.

영화 <4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준호(유재상)는 꽤나 재능 있는 수영선수다. 대회에 나갈 때마다 4등을 한다. 전국대회 4등이면 부모뿐 아니라 주변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실력이지만 메달은 3등까지만이다. 이 세계에서 4등과 골짜기는 같다. 준호 엄마는 폭력 코치를 붙여서라도 아이를 1등 만들기 위해 분투한다. 코치가 때려도 자신이 집중 안한 탓으로 돌리는 준호를 보며 관객은 안쓰러움을 넘어서는 동질감을 느낀다. 영화는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의 과열된 교육 현실이나 체벌 문제를 거론하지만, 수면 밑으로 들어가면 한결 깊은 이야기가 들린다.

한병철 교수가 저서 <피로사회>를 통해 통찰했듯 현대인은 이제 스스로를 착취한다. 책에 따르면 과거 규율사회는 최근 성과사회로 이행했으며,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긍정이 도를 넘어 현대의 신경증을 야기한다. 책은 그러면서 쓸모없는 것의 쓸모를 찾아 시스템에 내재한 피로를 떨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준호가 끝내 1등을 하는 이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일 수만은 없는 이유다.

<해피엔드> <사랑나> <모던보이> <은교>를 연출한 정지우 감독은,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벗어나 현대인 내면의 자유를 비춘다.

영화 속 아름다운 장면. 체벌 문제로 운동을 중단한 준호는 수영이 하고 싶어 새벽 풀장을 찾는다. 경합과 속도와 성과를 위해 줄 서 있던 레인들은 관리자가 동글동글 말아 걸어놓았다. 준호는 그제야 마음껏 자맥질하며 자유와 만난다. 정해진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했던 수영선수는 그렇게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유영을 통해 미없는 쓸모를 발견한다. 물 속 어른거리는 불빛이 관객의 마음 속 한편을 비춘다. 표면에 보이는 것,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을 걷어내고 들어가면 삶의 진실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다. 예술 안에 잠재한 저 심연에서,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해 애틋한 저 물 밑에서, 그렇게 우리는 빛나는 보물을 걸어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 <4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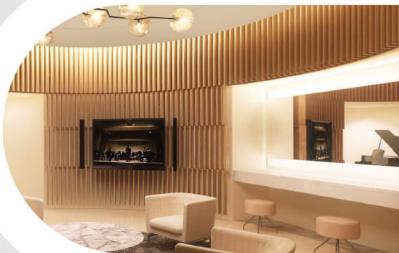
경기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의 키다리 아저씨 ‘대보그룹’

Timeless in Backstage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기억되는 공간을
선물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중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랐던 나라,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 행복의 원천을 김구 선생은 ‘문화, 예술’에서 찾았다. 예술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강력한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알기에 많은 기업들이 문화 나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아름다운 것이다.

8일간의 <경기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에서도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함께 여러 기업들이 힘을 보태며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그중 전당 대극장의 분장실 시설 노후화 및 기능적하에 따른 예술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보그룹'이 분장실 개선 공사를 맡았다.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아파트 등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에 나선 것이다. 관객에게 최상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나 배우들의 컨디션이 중요한 법. 수준 높은 공연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 분장실에 대보그룹의 손길이 닿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한국적인 색채와 선으로 절제된 단아함을 추구했으며, 대리석의 자연 패턴과 우드 루버의 리듬감은 공연의 긴장감을 해소해준다. 아카데미 기간 동안 리카르도 무티의 개인 공간으로써 그의 열정을 최고로 이끌어냈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저장과 함께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선물했다.

DAEBO BRAND STORY

대보그룹은 건설, 유통, 정보 통신, 레저 부문으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왔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대보건설,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그룹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정성과 혼을 다하여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모토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은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최동규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결혼식', '결식아동 돌기 도시락 기금 모금',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김장 나눔', 자선행사를 넘어 한류축제로 발전한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자선을 넘어 한류를 선도하는 대보그룹의 나눔 경영을 주목해 보자.



2016 그린 콘서트



2015 서원밸리 다문화 가정 결혼식



2015 서원밸리 자선 다문화 가정 결혼식

예술과 만남에 보내는 메시지

이 페이지는 독자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페이지입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술생활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등 자유롭게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magazine@ggac.or.kr

Monitor-G 활동가 최재영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나에게 있어 많은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본 전환이 필요할 때, 힘들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등 사람과 문화예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문화의전당이 있다는 사실이 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격월지로 만나는 <예술과 만남>은 다른 극장과는 확연히 다른 큼직한 판형이라 책장 서랍에 꽂아두고 보관하기 힘들지만 매월 진행되는 공연 일정과 내용이 아심 차게 준비되어 있어 꼭 챙겨보게 된다. 4·5월호에선 벚꽃 향 보다 진한 봄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소식을 우리에게 알렸다.

지난 호에서 눈에 띈 건 단연 '리카르도 무티'였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탈리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그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리카르도 무티 기사내용에 흠뻑 빠져있는데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더욱 재미있는 내용을 보았다. 헨릭 입센의 <들오리>에 대해 방송 드라마 안내처럼 인물관계도를 보여줘 신선한 감이 있었고, 역사 강사로 이름을 떨치는 설민석 씨가 해설을 맡은 <민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 또한 흥미로웠다.

경기도민으로서 또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예술과 만남>을 통해 공연 소식을 미리 받아 공연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 또한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무대, 조명, 연출, 관계자 등 무대 뒤 한편의 공연이 옮겨지기까지 그들이 흘리는 땀의 이야기를 <예술과 만남>을 통해 만나보고 싶다.



연회비

3만원으로 누리는 30만원의 혜택

(회원회원 2인 권장 기준)

구분	내용	합인받은 금액(원)
초대	예술단공연 20,000원 × 4회	80,000
예술단 공연	평균관람가 20,000원 × 평균할인율 30% = 6,000원 (6,000원 × 4회 × 2인 = 48,000원)	48,000
기획 공연	평균관람가 55,000원 × 평균할인율 20% = 11,000원 (11,000원 × 4회 × 2인 = 88,000원)	88,000
대관 공연	평균관람가 70,000원 × 평균할인율 10% = 7,000원 (7,000원 × 4회 × 2인 = 56,000원)	56,000
주차	공연 관람 시 무료주차 × 16회 × 2,000원	32,000
합인받은 금액 계		304,000

※ 초대권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문자 수신 후, 전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혜택

구분	종류	연회비	혜택
개인회원	일반	30,000원	초대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초대권 연 4회 제공 할인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티켓 구매시 10~30% 할인 (공연당 할인배수 4배)
	골드	50,000원	초대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초대권 연 4회 제공 할인 -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 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티켓 구매시 20~50% 할인 (공연당 할인배수 6배)

공동 혜택

공연활동의 경우
일부공연 제외할 수 있음

- 격월간지 <예술과만남> 우편발송
- 주차요금 면제(카드소지, 공연관람 시)
- 교육프로그램 '예술가꿈' 강좌 수강료 5% 할인
- 전화, 인터넷 예매수수료 면제
- E-mail, SMS 문자 뉴스레터 발송

가입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연중 수시 접수

기 간: 회원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가입방법: 웹회원 가입/로그인 후 아트플러스 회원가입(오프라인 및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담당

TEL 031-230-3242 FAX 031-230-3469 EMAIL: arplus@ggc.or.kr

※회원 안내 및 기타 회원 관련 모든 문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www.daebob21.co.kr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대보**

알차고 튼튼하게 성장해 온 대보가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세상, 풍요로운 미래.
이웃과의 행복을 꿈꾸는 기업 대보그룹입니다.

DAEBO



대보그룹 | 대보건설(주) | 대보빌딩(주) | 대보정물(주) | 대보유통(주) | 서울메트로(주) | 대보엔지니어링(주)

예술과만남

NEWS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기부금 전달

1

지난 4월 2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올해로 4년째 경기도내 31개 시·군 700여명의 문화배려계층 아이들의 꿈을 지켜 온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예술 감성 교육'으로 '문화소외 없는 경기도'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삼성전자가 디지털시티 임직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음을 모았다. 700여명의 어린이와 재능기부 선생님들이 한 무대에 서는 드림콘서트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재능기부로 마스터클래스 연 핀커스 주커만

2

세계적 가장 핀커스 주커만이 5월 4일 한국의 클래식 유망주들과 만났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경기실내악축제의 백백한 연주일정을 소화한 주커만이 예비음악가를 위해 마스터 클래스를 연 것. 그의 아내이자 첼리스트인 아만다 포사이까지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해 더 큰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유망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인 <경기영아티스트 시리즈> 2기 멤버로 선발된 첼로 부문 이동열(19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과 <경기영아티스트 시리즈> 2기 오디션 참가자 여운수(14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바이올린 부문에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추천한 김영경(24 ·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참가했다.



경기 영아티스트 1기 박진형, 김준호

3

제7회 프라하 볼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부문 1,2위 석권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젊은 음악가 양성 프로젝트인 '영아티스트' 1기 박진형(19)과 김준호(20)가 5월 14일 제7회 프라하 볼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부문 1,2위를 거머쥘했다. 국내 토종 피아니스트들이 이론 퀘거이기에 더욱 큰 관심이 쏠아졌다. 1위 소식을 전한 박진형군은 "외국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무대경험으로 국제무대에서 당황할 때가 많았으나 '경기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에서 쌓은 오케스트라 협연 및 독주 등 다양한 경험으로 이번 콩쿠르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위에 오른 김준호군 역시 "경기필과의 협연 경험이 결선연주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기 영아티스트 시리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6년째 이어져 온 경기도립무용단의 문화나눔강좌

4

지난 5월 21일 2016년 경기도립무용단 문화나눔강좌 수료식이 경기도립무용단 연습실에서 진행됐다. 도내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6년째 문화나눔강좌를 연 도립무용단. 지난 2개월간 넓디넓은 연습실을 마구 뛰어 다니며 온 몸으로 익힌 한국 무용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팔 들어 감아올리기, 겹걸음과 잔걸음이 아직 어설했지만 어찌하랴 우리 정단과 음악에 맞춰 신나게 달리는 동안 커지는 웃음소리만큼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기도 동북부 분교에 올리는 국악선을 경기도립국악단 교실음악회

5

오는 6월 7일까지 공연관람의 기회가 적은 경기 동북부 다섯 지역의 초등학교 분교를 경기도립국악단이 찾는다. 임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의 후원으로 남양주와 양주, 연천, 가평, 여주를 찾게 된 것. 우리 민요 외에 네이버 주니어 동요 인기순위 10위 안의 곡을 국악 반주에 맞춰 불러 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추문, 또한 사제시간, 서로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애뜻함을 전하는 낭독시간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경기필하모닉 5년째 지휘자 작곡가 육성에 나서

6

5년째 경기필하모닉이 제 2의 성시연과 김희라를 찾아 나섰다. 경기필하모닉의 <마스터클래스-지휘/작곡> 프로젝트는 솔리스트 양성에 편중돼 온 국내 음악교육의 한계를 넘어 지휘와 작곡 분야의 미래를 키우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휘자와 작곡가에게 있어 꼭 필요한 악기 '오케스트라'. 곁에 둘 수도, 밤새워 연습할 수도 없는 이 특별한 악기를 미래의 지휘자와 작곡가들에게 위해 경기필을 오롯이 내어주는 것이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21일에는 참가자 전원이 무대에 오르는 마스터클래스 파이널 콘서트가 펼쳐진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6 2016 Jun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화상영문 유아예 도입국악단-수원화성 달빛동행	② 안전 의류들 종합사회복지관 도입국악단-문화나눔31	③ 갈매원 피아노, 라사이클	② 도립국악단-국악뮤지컬 (금요일의 여행) 외 ④ 장기필터오나 마스터시리즈 V (월화 5번 교향곡) 외 ⑤ 네소초고 강당 도입국악단-문화나눔31 (유지필 4번송구) ⑥ 시흥시여성회관전체 강당 도입국악단-장신강연국악 (유지필 4번송구)	③ 도립국악단-국악뮤지컬 (금요일의 여행) ⑤ 2016비엔지 콘서트 (포맨릭 유적 세시모- 노래한다, 춘향) 외 ⑥ 화상영문 유아예 도입국악단-수원화성 달빛동행 외	③ 도립국악단-국악뮤지컬 (금요일의 여행) 외 ⑦ 대유공연 2016 칠우장콘서트 ⑧ 대유공연 가족뮤지컬 (연사-스타공의의 재지복) 외 ⑨ 장기필터오나 마스터시리즈 V (월화 5번 교향곡) 외 ⑩ 대유공연 가족뮤지컬 (연사-스타공의의 재지복) 외	③ 대유공연 가족뮤지컬 (연사-스타공의의 재지복) 외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7 2016 July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① 뮤지컬 (타네케르드) ④ 화상영문 유아예 도입국악단-수원화성 달빛동행 외 ① 익스트림 피로연스 (클라임) ② 뮤지컬 (피아마미)	④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⑦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⑧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③ 연가수제악기회를 대공연장 도입국악단-장신강연국악 (유지필 4번송구) ④ 공연시절종합사회복지관 도입국악단-장신강연국악 (유지필 4번송구) 외 ①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②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③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③ 도입국악단-장신강연국악 (유지필 4번송구) ④ 도입국악단-장신강연국악 (유지필 4번송구) ⑤ 분화가 있는 날 (피황소의 남편) 외	⑤ 오산 고현초등학교 장기필터오나 (유연콘서트) 외 ⑦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⑧ 장기필터오나 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① 뮤지컬 (타네케르드) 외 ② 장기필터오나 마스터시리즈 V (연말콘서트) 외 ③ 화상영문 유아예 도입국악단-수원화성 달빛동행 외 ④ 도입국악단 합창, 그 미를 보다-시논 ⑤ 뮤지컬 (피아마미)	③ 도입국악단 합창, 그 미를 보다-시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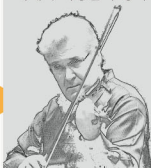
	① 대극장	② 소극장	③ 발나눔갤러리	④ 소일한갤러리	⑤ 경기도국악단 총가무극장	⑥ 공주시민문화센터	⑦ 연변부대	⑧ 신나는이웃방	⑨ 피로연
아트홀라스트원 초대 가능 공연	6월 경기도립국악단 국악뮤지컬<금요일의 여행>, 경기필 하모니<마스터시리즈V 일러 교향곡 5번X수원, 서울> 7월 경기필 하모니<마스터시리즈V 멘델스존 4번 교향곡>, 경기필 하모니<지휘자곡 마스터클래스>, 경기도립무용단<춘하, 그 미를 보다-시논 II>								
아트홀라스트원 합인 가능 공연	6월 경기도립국악단 국악뮤지컬<금요일의 여행>, 경기필 하모니<마스터시리즈V 일러 교향곡 5번X수원, 서울>, 보편지콘서트<요양예 뮤지 레시모-노래한다, 춘향>, 갈매원 피아노, 칠우장콘서트2<연말의 향운>, 내가 만드는 동화이야기(I-4 Story) 7월 경기필 하모니<마스터시리즈V 멘델스존 4번 교향곡>, 경기도립무용단<춘하, 그 미를 보다-시논 II>, 익스트림 피로연스(클라임), 뮤지컬 말마미마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부탁해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논란으로
되돌아본 25년의 기록

경기도의 문화공지를 높이다

세계적 거장들이 경기도에..



핀커스 주커만



리카르도 무티

500여 회 공연

450,000여명 관람

한해 500여 번의 무대, 45만 여명의 관객과
만남을 이어나온 12년

재깍재깍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힘을 예술은 갖고 있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음악에 행복했던 그날을 떠올릴 수도 있고, 마음 속 깊이 묻어둔 슬픔과 마주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취송시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엔 안개가 없었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예술 안에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요즘, 드높은 푸른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경기도문화의전당에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폐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지난 25년간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예술의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제논리에 외면당한 예술의 가치, 문화예술계 종사자로서 느끼는 그 답답함을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걸어온 그 길을 되짚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폐지 반대'라는 검은 현수막 대신 알록달록 다양한 공연 현수막이 펼쳐리는 그날을 위해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부탁해'



국내 최초 단일악기 페스티벌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

제1회 더 뮤지컬 어워드 최우수작품상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No.1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 브랜드

우리 삶에
파고든
예술향기



2,500여회
120만 여명 관람

전국 팔도 예술을 전한 거리

297,995km



지구 7바퀴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구석구석을 훑은 문화나눔31



누군가는 예술가의 꿈을 키웠고,
 누군가는 벽찬감동을 나누었으며,
 누군가는 빛나는 예술의 가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더 키우고, 더 나누기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GYEONGGI ARTS CENTER